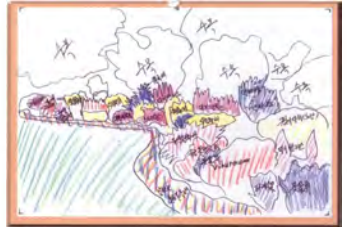


발행일 2004년 2월 1일 통권 7호 | 월간 발행인 박공영 | 발행처 우리꽃 | 주소 경기도 이천시 오가면 송곡리 696 (467-872) | Tel, 031-634-7990 | Fax, 031-634-7991 | 디자인 및 인쇄 아트프린팅02-805-8874



‘우리꽃’이 혼합식재라는 개념을 제안(우리꽃뉴스 2003년 8월호)하고 난 이후 많은 분들이 그 적용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앞으로 연중기획으로 혼합식재된 식물과 그 혼합식재의 주제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편집자주)



계절이 알맞은 식물을 적용함으로써 많지 않은 수종으로도 화색을 잘 유지한 안정감있는 설계로 보여진다

이번호의 주제사진은 2002년 6월 17일 촬영한 사진으로 초여름의 계절로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이 조경은 잔디밭 언저리를 조경한 것으로 선이 굵은 혼합식재형이다. 특히 노랑의 식물을 많이 이용하여 화려함을 돋보이게 한 내용이다.

우선 모든 혼합식재가 비슷하겠지만 반박식재를 하여 품목은 같지만 품종이 달라 개화시기를 다르게 하여 분위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가장 많이 반박한 식물은 원추리를 현재 노랑의 꽃이 반박된 것 이외에도 아직 꽃을 피우지 않은 유색품종을 비슷한 비율로 적용해 약 15일 간격을 두고 화색이 다른 원추리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보라색의 스타치스와 멜피니움을 앞뒤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안정되면서도 화려함을 강조했다.

뒤쪽에는 대형식물인 디기탈리스를 반박 적용하여 뒤쪽의 수목을 배경삼아 매우 화려하고 안정감을 갖게

하고 현재 그림의 앞쪽에 보이는 핑의다리류(노랑)를 반박적으로 심어 약 15일 후에는 더욱 화려하고 밝은 색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독립수로 중앙이후에 대형의 절곡대를 적을 포인트식물로 여분을 준비한 것도 이색적이다.

현재 포인트 꽃은 뺑강으로 감별하고 대형인 속근 뽕배(꽃알귀바)가 많고 있다. 사진에는 꽃이 진 것으로 보이는 보라색 붓꽃류의 개화와 그 이전에는 알리움과 같은 구근식물이 반박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사진에 나타나지 않고 있거나 앞쪽으로 키가 좀 작은 것 들은 약 2개월 후인 늦여름 혹은 가을에 꽃을 피울 것들로 반박적으로 식재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계절에 알맞은 식물을 적용함으로써 많지 않은 수종으로도 화색을 잘 유지한 안정감 있는 설계로 보여진다. 이를 유추해보면 잔디 앞쪽에 있는 1년초가 개화할 약 7월 중순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시기임을 예상할 수 있겠다.

현재 위의 사진에 이용된 식물의 포기수는 1~6 포기 정도를 심어 식물과 식물의 간격을 충분히 띄워 식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포트규격이 작지만 이 혼합식재를 하기 위해서는 포기사이즈가 크면 흡수율 좋다. 예를 들면 우리는 원추리를 2~3분얼이 보통의 규격으로 사용하는데 혼합식재의 적당한 분얼 수는 15~20분얼 정도이다. 대신 포기수와 포기 사이를 충분히 띄우고 생육 과정이 다른 식물이 바로 옆으로 오면서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독립포기의 형태가 안정되고 고급스럽게 자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혼합식재를 하기 위해서는 2~3분얼포기를 약 7~10개정도 한꺼번에 심는 방법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반박식재할 때도 너무 멀리 반박식재를 하지 말고 약 3~5m정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그 거리를 넘을 때는 화기, 화색, 등이 비슷한 식물로 식재를 하는 것이

좋다.

혼합식재는 반박과 화기, 화색의 조화, 그리고 식물의 성장과정의 생태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조경현장의 성격이 고급화되고 실력이 향상되어 몇몇 대표적인 계절식물을 주로 이용하고 포인트식물과 부재료 식물을 적당히 활용하면 아주 화려하고 색다른 정원을 가꿀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키가 작은 식물만을 너무 선호하지 말고 적당한 대형인 식물을 선택적으로 이용, 주변 수목 혹은 건물 등과 동선이 잘 맞도록 설계하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 계절별 화기별, 화색별, 그리고 주변 환경별 식물선택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그만큼 조경이 안정되고 쉽게 화창한 얼굴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품목은 같지만 품종이 달라 개화시기를 다르게 하여 분위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Contents	
2면	월간마당/면세
3면	2004 관상용 포트식물
4면, 5면	우리꽃 현상제응품
6면	현상제포트
7면	사방과 조경/지상중계
8면	기획특집-춘사구근



열린마당



김경호(金慶勳) 농림박사
상생에버랜드(주) 환경개발사업부
환경사업팀 훼손지복합팀장

밭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03년이 지나가고 2004년 이 다가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새롭다는 것은 우리를 항상 뜰뜰케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마무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국제경기 및 건설산업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향상과 환경법규 강화 등에 힘입어 시

환경복원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대비해야

장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향후 20~30년간 환경 복원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복원시장 규모는 2005년에는 1조1천300억원, 2010년에는 1조9천900억원으로 확대돼 연평균 증가율은 2005년까지 14.5%,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11.6%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러 경제지표들이 말하고 있듯이 환경복원과 관련된 산업은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은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대비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단 단지폐기시에 온라인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서 오프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복원 사업 분야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최근 인터넷의 주요 검색어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백두대간"과 관련된 훼손지의 복원 및 보전, 복원사업에서 "자생종 Seed bank", 복원을 재료로서 "천연 및 재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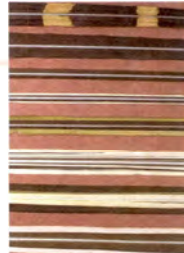
소재" 등의 용어들은 2004년부터 환경복원사업의 주요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은 주요 이슈들은 여러자료가 제시하는 낙관적인 전망과 맞지 않게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대처만으로는 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복원이란 치밀한 자연과학을 토대로 해야만 가능하며, 생태적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한 한걸음도 다가설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도전과 기회, 그리고 시대적과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다가오는 세례를 맞을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스스로가 자문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미래를 알차게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올해가 기회의 시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고급소재

무늬중시리즈①



역세무늬중의 각 품종들
묘양은 매우 다양하다.

최근 국내에서 역세가 좋은 조경용 소재로써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물억새는 생태하천 등의 조경에 많이 이용되고 있어 거대규모 조경을 지체소재중 수량으로 몇 백배 인에를 만큼 많이 재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역세의 품종이 구분되어 사용되지는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도 지역에 따라 다양한 품종이 실제 존재하고 있고 구분가능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형태적으로 완전지립형과 반지립형, 소형과 대형, 그리고 잎의 색깔에 따라 녹색, 진녹색, 블루색과 자주색 등 다양하게 구분되며 이삭의 모양에도 각각 다른 형태를 볼 수 있다.

역세가 좋은 조경을 소재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 중 무늬중역세에 단연 으뜸이다. 역세의 무늬중은 일반적으로 두부류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세로형의 *Miscanthus sinensis 'Variegatus'*와 가로형(파형)의 *Miscanthus sinensis 'Stratus'*가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세로형과 가로형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들 품종의 무늬가 깨끗하고 대량이며 독특한 묘가 활용되면 매우 좋다.

생태적인 특성은 일반역세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역세는 전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일부 품종은 내한성이 강한 게 있으므로 최후반 반드시 내한성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무늬중역세는 녹색과 물, 진갈과 모두 잘 어울리는 전천후적인 조경소재이다. 아직은 국내 적용사례가 적지만 앞으로 2~3년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며 일부 국내에서 이미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원의 새로운 귀족자로 주목할 만한 수종으로 적극 권장한다.



역세종류
묘양은 매우 다양하다.

Q&A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본 란은 '우리꽃'에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 FAQ 형식으로 발췌했습니다.

Q: 우리꽃뉴스에 나오는 '우리꽃' 우수품종시리즈 모두 보유하고있는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소개된 품종들보다 더 많은 품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소개되어진 품종들은 현재 어디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진 품종입니다. 올해는 전시코팅 및 필드대회를 개최하여 여러 분들이 직접 식물들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추후 여러분들에게 새롭고 차별화된 식물들을 하나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Q: 아생화를 심으면 개화기가 짧고 꽃이 진 후 모양새가 좋지 않아 일반적인 조경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지금까지 포켓에 조경에 이용을 하지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도 여기는 골프장입니다.

A: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화액과 화기가 서로다른 식물로 혼합식재를 하거나 우리아생화 뿐만 아니라 화기가 길거나 우리꽃 등 잎이 좋은 수종들을 혼합하여 조경에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후에 성조제, 병해충관리, 치해분해 일과 꽃대 제거 등 꾸준한 관리가 되어 좋은 모양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중금속이 얼마 남지 않아 지금 몇가지 지피식물을 식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겨울이나 식재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한데 괜찮을지 묻고 싶습니다.

A: 실제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호에서 자세히 다루었는데(11월호 우리꽃 제1판 참조) 서립발미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이온 불염이 막 물릴 때쯤 들은 뿌리를 토양에 밀착시키기 위해 얇아 수지기 바랍니다.

(우리꽃 홈페이지(www.우리꽃.kr))에 궁금하신점을 올려주시면 빠른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스포트라이트

2004 관심집중 포인트 식물

부족한 초대형 초본식물의 발견 칸나 '파초'

칸나 '파초'는 일반 칸나와는 식물이기보다 오히려 바나나 나무에 가까우리 만큼 대형인 식물이다.

우리조경에는 외국의 공원에서 많이 보고 감탄해하는 초대형 초본식물이 거의 없다. 채소로 이용하는 토란, 우엉, 철국대, 칸나, 물대 등을 볼 수 있으나 이들도 독립적 종으로 심을 수 없는 식물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원 혹은 조경현장은 변화의 폭이 그만큼 작아지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 칸나의 초대형 종인 품종명 '파초'를 개발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초대형 초본식물의 적용이 가능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대형 초본식물은 옛날 초가집 주변 매우 큰 바나나같은 식물과 상설개, 그리고 웃통을 벗어놓은 악살선인 표정의 건장한 사내 등이 그려진 민화에서 볼 수 있고 정조대왕이 그린 정조대왕필파초도에 묘사되어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는 바나나와 같은 식물은 진짜 파초(Musthaca Sch. Z)라는 식물이고 칸나 '파초'는 일반적인 꽃이 큰 칸나는 달리알이주관상포인트가 되는 식물이다.

키가 3m이상 자라고, 잎은 길이 120cm 폭 50cm에 이르는 이국적인 초대형식물이다. 칸나는 원래 수생식물인데 길가에도 많이 심는 것처럼 이 '파초'도 물가에 심는 것이 생육에 가장 좋지만 일반 지역에도 매우 잘 자란다. 퇴비를 많이주는 것이 더욱 초대형식물이 되게 한다. 잎은 약간 붉은 빛이 도는 색을 가지고 있어 더욱 아름답다.

추천 적용포인트는 골프장의 폰드 주변에 독립수로 심



어 한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느낄 수 있게 이국적으로 연출하거나 클럽하우스의 정자쪽으로 심어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식물원 혹은 관광농원의 등의 미로나 이색적인 식물숲을 만들 때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월동은 일반칸나에 준하면 된다.

시원한 이국의 정취, 그리고 초대형 초본식물의 도입으로 더욱 다양하고 아름다운 현장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꽃이 피는 칸나 '파초'는 칸나 '파초'와 칸나 '파초'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수종, 수생식물의 올바른 이해 - 연재 ①

수질정화, 관상가치 그리고 쉬운 뒤처리까지 돌아카시아



물을 정화시키는 많은 식물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식물로 부레옥잠을 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부레옥잠은 잎과 꽃의 관상가치가 있으면서 물 정화능력이 있어 많은 연못에 재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부레옥잠이 정화능력은 뛰어난 반면, 가을이 되어 식물체를 제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물의 부영양화를 가속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여름 증식을 매우 빠르게 진행할 때 노화된 잎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양이 매우 많은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느끼는 제거 작업에 대한 부담감과 물에 입식시 들어가는 비용 등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것도 부레옥잠의 단점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적용가능한 대안식물로 돌아카시아(*Ascheuchme radicans*)를 적극 추천한다.

물 위를 기어다니며 물을 정화시키는 식물인 돌아카시아는

생장이 아주 빨라 일년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약 15~20m를 자란다. 웬만한 연못전원을 덮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장마철 이후 물로 유입된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면 급속히 성장하는데 시기에 하루에 10cm이상 자란다. 콩과식물로 증가는 텀비어물위에 뜨고 뿌리는 줄기의 전부위에 나와 어떤 정화식물보다 길고 많이 나온다.

잎은 아카시아 잎을 닮았고 두껍고 푸른 색을 띤다. 미소사처럼 해가 넘어가면 잎이 옅어지고 해가 뜨는 아침이면 다시 짙어져 물위를 푸르게 만든다. 이러한 잎의 퍼짐과 옅어짐의 작용으로 더운 여름 물온도의 상승과 변화를 낮추고 유해 병원균과 조류의 번식을 억제하여 물의 냄새유발까지도 막는다.

그리고 일부 구근의 수면에 아주 작은 식재함으로써 모든 조성능력이 끝나게 되고 가을이 되면 부레 옥잠과 같이 물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증식만 잡아당기면 제거가 완료되는 매우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식물이다.

잎도 예쁘고 꽃도 노랑으로 아름다운 특이한 정취를 연출할 수 있고 줄기 사이사이에 적은 양의 부레옥잠을 띄워 더욱 화려하게 할 수도 있다.

면적대비 식재기준은 2m²당 1본 정도가 알맞고, 시중에 나오는 규격은 이쁜 볼 약 L=0.220cm 정도 줄기가 자란 포트로나온다. 아직은 주로 관상용의 가정정원을 옹호되어온다.

골프장의 폰드나 물 유육이 느린 강 혹은 물고기를 키르는 양어장 등에 이용할 만한 식물로 추천한다. 이제 가을에 부레옥잠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줄기 전체에 발생하는 뿌리는 물의 정화능력에 매우 뛰어나다.



이달의 현장히트 품종



단상의 아름다움! 속근깨보비(꽃양귀비)

대면적의 최고 이벤트

1. 꽃이 매우 화려하고 강렬하다.
2. 공원, 둔지 등의 대면적에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3. 고급스러운 느낌의 경관을 연출할
4. 내한성에 매우 강하고 건조에도 강해 불가용에도 잘 견딘다.



꽃이크고 화려한 개량목단

화색이 매우 다양한 아름다운 겹꽃

1. 꽃이 크고 화려하다.
2. 향이 매우 뛰어나며 화색이 다양하다.
3. 겹꽃으로 정원의 포인트식물로 최고이다.
4. 목단은 부귀, 영화를 의미하는 최고의 선물



화사한 풍나들이 아라비스

상록의 새로운 라가든 식물

1. 밝고 화려한 꽃무리를 형성한다.
2. 건조에 매우 강해 옥상조경을 소재로 좋다.
3. 포복형의 식물들은 매우 이상적 라가든 타입이다.
4. 상록의 볼식물로 꽃다리를 연출하게 한다.



향긋하고 화려한 시기 식물 양구슬갯병이

라가든은 물론 옥상조경에 최고

1. 꽃이 화려하고 아름답다.
2. 건조에 강하고 피복력이 뛰어나다.
3. 낮은 잔디밭 주변 혹은 돌틈식재 등에도 좋다.
4. 재배가 쉽고 우리환경에 잘 적응하는 식물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키는 잔디같은 배롱이 잔디패랭이

화색이 좋고 피복력이 최상

1. 최근 국내 신물종 소재종 최고 인기종
2. 잔디처럼 깎아 주면 더욱 좋다.
3. 키가 작고 꽃이 좋아 잔디밭이나 골프장, 섬지, 화분 등의 조경에 최상
4. 고급조경의 기본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길과 풀 최고의 상록패랭이 상상패랭이

잎의 질감 최고, 화색다양 신개념 상록패랭이

1. 블루색의 잎과 다양한 화색은 우리의 상록패랭이 역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2. 라인을 형성하거나 건조지 식재를 위한 최상의 품종군
3. 어릴 때는 화강목같은 구형, 자라면서 일차 포복형으로 메트형성
4. 일반 상록패랭이에 비해 장미철 깃무름에 매우 강함.
5. 연중 개화 신물종 출시 준비중

아이들의 향유할 만지 가우라 화려하고 장기 개화 1. 생육이 매우 강해 어디에 적용해도 잘 자람 2. 대면적의 식재를 통한 경관연출에도 유리	종가들의 재기용 비단둥자 건조에도 강한 화려한 동자 1. 일반 동자꽃에 비해 생육이 매우 강하다. 2. 임시, 건조에 강해 관리가 쉽고 화려하다.	드란뎡 아가넷 안데미스 아름다운 다화성의 꽃무리 1. 노란색의 꽃은 매우 밝고 깨끗하다. 2. 공원도로변, 골프장, 전원주택 등에 좋다.	새로운 습지 패랭이종 물사초 '화왕' 내한성이 강한 반상록 수종사초 1. 블루색 잎은 질감이 뛰어나다. 2. 습지조성식 군식재거나 또는 포인트식물로도 좋다.	카사랑과 시기식물 모두 강한 카펫패랭이 꽃이 향긋한 상록의 패랭이 1. 꽃이 다양하고(3품종) 지피력이 뛰어나다. 2. 잎이 매우 조밀하고 담엽에도 매우 강하다.
젊은색 '맥문동' 맥문동 '흑룡' 정제나 라인을 위한 최고의 소재 1. 검은색잎은 새로운 느낌을 준다. 2. 특유의 지피 라인식물로 이용하면 좋다.	깨끗한 야생우디계열 무늬돌나물 건조지 및 옥상녹화용 1. 잎이 조밀하고 매우 아름답다. 2. 건조지 및 옥상조경의 최고의소재	기차 작은 외양미 아름다운 속근왜성천인국 꽃이 아름답고 키가 작은 여름대표식물 1. 꽃이 화려하고 개화기가 길다. 2. 화색이 아름답고 강열해 최상의 포인트식물	수련의 아름다운 무늬미나리 화려한 무늬종 미나리 1. 생육이 강건해 지피력이 뛰어나다. 2. 기존 수변식물과 어울려 포인트식물로 좋다.	습지의 새로운 대안 제주참송악 잎이 조밀한 애기송악 1. 잎이 작으면서 매우 조밀하다. 2. 상록으로 나무아래 식재가 가능하다.
야생우디 우디계열 에키나 '스노우' 순백의 이국적 아름다움 1. 색다른 느낌의 조경소재 2. 생육이 강해 어떤환경에도 좋다.	파스텔톤의 고급 청원용 개량패랭이 파스텔톤의 고급 청원용 1. 건조한 곳의 생육도 매우 일호. 2. 다양한 화색의 고급 청원용, 공원 골프장용	인공모양의 보아색 꽃송이 토끼풀 '연화' 뛰어난 지피력의 새로운 품종! 1. 미관상 잔디밭에도 영향을 주지않는다. 2. 도로가, 화단, 골프장 등의 폭넓은 대안 식물	국립원의 새로운 패랭이 왕수염패랭이 다양한 꽃무리와 화색이 주는 즐거움 1. 꽃무리가 크고 개화기가 길다. 2. 다양한 화색은 독립종으로도 화려한 조경 연출 가능	이국적인 아름다운 디기탈리스 목초, 전원주택 등의 건물과 잘 어울림 1. 꽃의 볼륨이 크고 화려하여 뒤편 식물로 일호 2. 화기가 길고 화려한 고급품

개량후룩스

다양한 화형과 화색의 15품종 보유

1. 화형과 화색이 매우 다양하고 꽃이 화려하다.
2. 화기가 길어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다
3. 기존 품목에 비해 원가부담 등 병충해에 매우강하다.
4. 이들 품종간의 혼식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5. 골프장, 도로가, 정원, 공원, 식물원 등 어디에 적용해도 좋다.





‘우리꽃’이 2003년 가을에 추진한 추식구근의 조경연출에 큰 관심을 보여주시 보담으로 더욱 아낌없이 다양한 조경현장의 연출을 위하여 이번에는 추식구근을 특집으로 엮었다.

추식구근이란 봄에 심는 구근 식물을 뜻하는데, 보통 추식구근은 내한성이 강하고 이른봄 개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추식구근은 내한성이 약하고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인 연속개화하는 종류들이 많다.

구근은 호흡식재의 중요한 수단이며 재료이고 특히 대부분의 구근식물은 매우 화려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글라디올러스 등은 60cm정도의 발을 심는데 배반이 쓰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

1. 추식구근에는 어떤 식물이 있을까?

추식구근은 글라디올러스, 다알리아, 크로커스 마, 자란, 구근베고니아, 칸나, 아네모네로보나리아, 나리류, 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허브란투스, 라이트리스, 꽃무릇, 티그리다아, 칼라등우

포인트식물이 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크로커스 마, 나리류, 아네모네로보나리아, 라넨쿨러스 등은 내한성이 강하므로 어디에 적용해도 종나 기타식물들은 겨울 월동분제를 고려하여 식재해야 한다.

그리고 글라디올러스와 일부 백합류는 줄기가

리가흔히 알고 있는 품목을 보셔 주로 절화용으로 많이 보아 온 식물이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에게 잘못 알려져 노지에 심어지면 퇴화하여 죽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이와 전혀 다르다. 일반적으로 농가재배용은 절화용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꽃이 피기 시작할 때 잘라서 팔게 되므로 영양을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불발하게 자란다. 그러나 그 불발한 개체를 1년 동안 잘 관리하면 그 다음에는 좋은 꽃을 다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경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꽃이 다 피고 질 때까지 자르지 않기 때문에 매년 좋은 꽃을 볼 수 있고 포기도 더욱 커진다.

2. 추식구근의 조경에서의 이용법

대부분의 추식구근은 매우 아름답다. 따라서 조경에서의

포인트식물이 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크로커스 마, 나리류, 아네모네로보나리아, 라넨쿨러스 등은 내한성이 강하므로 어디에 적용해도 종나 기타식물들은 겨울 월동분제를 고려하여 식재해야 한다.

그리고 글라디올러스와 일부 백합류는 줄기가



다알리아의 다양한 품종들

꽃고 깊게 자라게 되므로 60cm정도를 땅을 설치해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고 다알리아의 대분종(꽃의 지름이 약30cm에 이르는 품종)은 지주대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

다알리아들은 종자파종에 의해서 재배되기도 하지만 실제 구근으로 재배되는 품종의 화려함을 따라올 수가 없다. 다알리아는 6~10월까지 꽃을 피우므로 장수가 준비된다면 화려한 다알리아를 종발 적용을 통해 매우 화려한 정원 연출이 가능하다. 오히려 일반적인 장미원을 훨씬 능가하는 아름다움을 가진다.

글라디올러스 등도 품종이 10,000종이 넘는 정도로 분화가 잘되어 있고 화색이 매우 다양하다. 구근베고니아의 화려함이나 경험하지 않고서는 느낌이 불가능하다.

백합류는 꽃의 모양과 색, 그리고 품종이 워낙 다양하므로 절화용보다는 조경용구근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우리의 하늘나리와 같은 형태, 혹은 참나리형, 그리고 철쭉백합형이 좋다.

대부분의 추식구근은 겨울월동을 하기 위해서 는 보존을 하여 가을에 캐내어 실내보관 후 봄에 다시 심어야하므로 관리가 어려운 곳은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꽃이 아름다운 만큼 보존 관리에 손이 더 들어가는 것은 어쩔만 당연한지도 모른다.

돌아보면
우리 농

— 추식구근 특성 및 주분표 —

품목	화기(월)	화색	키	식재(㎡)	최소온도(℃)	월동요구
익시아	6~8월	혼합	45	100	1000	—
익시리스	6월	혼합	60	100	1000	가능
자란	5~6월	혼합	60	25	300	가능
비비리나	5~6월	보라, 분홍	30	100	1000	—
크로커스마	7~9월	빨강, 주황, 노랑	60	50	1000	가능
다알리아	6~10월	혼합	25~100	15~6년	200	—
후리지아	6~10월	혼합	60	80	1000	—
글라디올러스	6~9월	혼합	50~120	100~50년	1000	—
허브란투스	8~9월	빨강	70	100	1000	—
백합류	6~9월	혼합	50~120	20~30년	500	가능
티그리다아	7~9월	분홍, 노랑	40~60	60	1000	—
칸나	7~10월	주황	150	9	100	—
칸나리프	7~10월	빨강	300	6	50	—
나리류	7~10월	노랑, 주황, 빨강	50~100	20	100	가능
리아트리스	7~10월	분홍	70	25	300	가능
알스트로메리아	6~9월	혼합	70	25	300	가능
아네모네로보나리아	5~7월	혼합	30	80	1000	가능
구근베고니아	6~10월	혼합	30	20	200	—

추식구근 지급 주분표해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바람에 좋은 경관 연출의 포인트식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것입니다.
(연월종 주분이 확정되지 않은 일부 품목은 금급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나 미리 주문바랍니다.)



신소재-옥상용식물 ①



여름에도 겨울에도 빨간단풍

단풍세럼

우리는 대표적인 건조식물로 세럼류를 꼽고 있고 옥상식물의 최고식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엔 국내에도 약 50여종의 세럼식물이 도입되거나 개발되어 이제 막 시장엔 옥상조경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단풍세럼은 연중 식물체 전체가 단풍이 든 것 같은 적색을 띤다. 또한 관리가 어려운 현장에 매우 유리하고 문양을 넣거나 절경을 표현하는데 안성맞춤인 세럼으로 관리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음지나 습기 너무 많은 곳은 피하고 잎을 깊어 먹는 달팽이, 나방의 유충등을 잘 방제하면 관리는 매우 쉽다.

단 관리가 쉽다고 너무 건조하게 하거나 양분이 없으면 자라는 속도가 매우 낮다.

옥상의 문양을 넣거나 띠를 넣는 등 전면에 식재할 때는 1㎡당 50본정도를 이용하고 준공이 남은 상태이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25본정도로 줄여서 식재하고 관리하면 된다.



한 장에 OK! 우리꽃 대형 포스터!!!

‘우리꽃’ 지피식물의 모든 것!

2월초 배포합니다.

500여종 지피식물의 특성 및 사진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예약주문받습니다.

가격:10,000원 (택배비포함)

여러분들의 자발적 구독요금 후원을 기다립니다.

지정된 계좌에 금액에 상관없이 구독후원을 하시면

농번 : 235100-66-071562

예금주: 박경원 (우리꽃 대표 및 소식지 발행인)

(현재저적금액: 41만원)

